

남-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새 역사 썼다

66년만에 첫 3자 동시 회동... “평화구축 시발점”
트럼프 대통령, 군사분계선 넘어 北 땅 밟고 귀환
문 대통령 역할 ‘눈길’... 비핵화 협상 재개 신호탄

남북미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다. 1953년 정전협정 후 66년만의 사상 첫 남북미 회동으로, 세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사상 첫 회동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정상이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북미 정상이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미 정상은 별도로 한 시간 가량 현안을 논의했는데, 사실상 3차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회동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양 측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땅을 밟고 돌아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미국 대통령으로서 판문점 경계선(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주 특별한 순간이다. 김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번 회동을 결단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을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제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제안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여 남측 지역으로 내려와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긴 중재 노력도 역사적 회동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미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에 대한 대화 재개 설득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의 부정적 메시지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의 만남과 관련해 “평화는 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용기를 내주시는 두 분 정상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평화로 가는 방법을 한반도가 증명할 수 있게 돼 마음이 벅차다”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판문점에서 함께 한 남-북-미 정상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세기적 만남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각본없는 드라마’처럼 펼쳐진 깜짝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과 만남 제안
북-미 넘어 남-북-미 회동 이어지며 세계 관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각본없는 드라마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관계마저 빠져거리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될 지는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취임 후 첫 방한에서 기상 문제로 방문하지 못했던 비무

장지대(DMZ)를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한에 맞춰 추진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안을 앞두고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다.

북측은 이례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내비쳐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사전 조율과 의전 준비 등에 거의 하루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을 만큼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깜짝 회동이었던 만큼 짧은 만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부분도 예상을 넘어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공식 언급했을 당시만 해도 짧은 만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북미 정상이 한 시간 가까이 얼굴을 마주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며 사실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의 만남에 이어 남북미가 회동한 것도 예상을 넘어선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개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DMZ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미 회담이 중요하다”며 남북미가 만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오히려 대남 비방 메시지의 강도는 높아졌기에 남북미 회담까지 이뤄질 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청와대-부미한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함께 해야 **즐거움** 가 더 커집니다